

소련내 소수민족

〈편집실〉

발트3국의 분리독립요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민족분규에서 보듯이 소련의 민족문제는 역사적 배경이나 전개양상에 있어서 여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아니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속해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구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두 민족사이의 분규는 소련 중앙정부군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듯 하나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아르메니아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은 각각 연방공화국이며 나고

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속해있는 아르메니아인의 자치구이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민족차별정책에 불만, 1988년 매일 시위를 벌여왔다. 연방정부에서는 민족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연방정부 직속의 임시행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가 페레스트로이카에 입각한 기업연합을 포함한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소수인 아제르바이잔은 아르

메니아인들에게 복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의 직접 귀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이곳에 아제르바이잔인만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아르메니아인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자기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두공화국 간에는 자기 민족을 지원하는 사태로 발전하면서 투석전, 경제봉쇄, 유혈 충돌의 단계로 확산되고 말았다.

두공화국 사이의 분쟁이 내전으로까지 치달은 이유는 우선 잠재적



실업자의 급증으로 직장과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피난민(약 40만명)이 모든 시위와 파업에 참가내지 선동에 앞장섰으며, 유력인사들의 몸조심, 또는 적극적인 선동, 뿌리깊은 종교적 반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두 민족은 이미 1918~20년 사이에 주민의 20%가 희생되는 치열한 전쟁을 벌인 역사적 상처가 있어 더욱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 민족구성

소련연방은 15개의 연방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구, 10개의 민족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88년도 기준 2억7천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련인구중 러시아족은 과반수를 약간 넘으며 나머지는 1백20여개의 소수민족 (1억3천여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종족간의 결혼풍습을 고수함으로써 고유한 혈통의 보존과 동질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 언어

소련헌법에는 소비에트 시민은 누구나 그들의 모국어 및 소련내 다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련정부는 최근까지 각급학교에서 러시아어의 사용을 강제해왔다. 이 때문에 한때 1백30여가지에 이르던 언어가 70여가지로 줄었다고 한다.

◇ 소련의 주요 민족구성 (88년말 기준)

민족	인구 (만명)	비율 (%)
아르메니아인	312	1.1
아제르바이잔인	620	2.3
백러시아인	968	3.5
에스토니아인	149	0.5
그루지야인	507	1.9
가사흐인	1,505	5.5
키르기스인	365	1.3
라트비아인	254	0.9
리투아니아인	345	1.3
몰다비아인	400	1.5
러시아인	13,900	50.9
타지크인	410	1.5
투르크멘인	290	1.1
우크라이나인	5,014	18.4
우즈베크인	1,616	5.9
한국인	40	0.1
기타	600	2.2
계	27,295	100

인종의 언어가 다양한 만큼 종교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종교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 민족적 동질성을 보존해주는 강력한 결속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회교를, 리투아니아는 카톨릭을, 에스토니아는 신교국이며,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공화국간의 영토분쟁은 종교분쟁으로 사태가 발전하게 되었다.

● 민족분류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소련의 지도부가 레닌의 민족주의 종중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던 제정러시아시대의 러시아 민족 우월주의가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스탈린은 대대적인 소수민족 숙청작업을 벌여 1백만명의 소수민족들을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강제이주시켰다.

또한 러시아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내세워 소수민족의 종교와 고유언어를 폐지 또는 탄압했다.

스탈린 사후 한때 소수민족정책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소련내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등을 취소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이와함께 각 공화국의 정부요직도 러시아인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농촌의 집단농장화는 자치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러시아인과는 결코 동화될 수 없다는 민족주의가 싹터 민족간의 반목이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소련내 한민족

소련내 한민족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소련내 1백20여 민족중 29위라는 적지않은 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중 3분의2 정도가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즈베크공화국에 18만명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공화국에 10만여명, 사할린에 3만5천여명이 모여 살고 있다.

한민족의 소련이주 시기는 1863년경으로 보이며, 1884년 조노조약체결로 귀화권을 갖게 되자 대거 두만강을 건너 정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소용돌이 이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18만명의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여명이 처형됐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간 한민족들은 또다른 집단을 형성, 오늘에 이르고 있다. ●